

라마(Llama)와 구아나코(Guanaco)

높이 3,000 ~ 5,000 m 에 이르는 안데스 산맥에 서식하고 있는 알파카와 비큐나, 그리고 라마와 구아나코도 결국 모두 낙타과의 동물로서 역시 초식 동물이며, 서로 친척별이 된다. 라마는 고대 야생 구아나코를 가축화한 것이란 설이 유력하다. 라마는 덩치가 가장 커서 몸의 길이 약 1.6 m, 키가 약 1.5 m, 몸무게가 110 ~ 150 kg 이다. 특히 볼리비아나 페루의 산악지방에 서식하고 있으며, 속눈썹이 길고, 눈망울이 크다.

라마는 아시아의 낙타와 같이 반추동물인데, 등에 혹이 없는 것이 다르다. 대단히 온순한 동물이어서 사람을 잘 따른다. 그러나 라마는 알파카나 비큐나와 달리 털을 활용한다는 목적 외에 교통수단이 없는 안데스 산맥의 험악한 고원지대에서 짐을 실어 나르는 하역용으로 유명하다. 해발 4,000 m가 넘는 산을 40 ~ 50 kg의 짐을 등에 지고 하루에 25 km 정도를 갈 수 있다. 산소가 희박한 이런 고지에서 하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인지도 모른다.

라마의 서식지는 남위 6°에서부터 50°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가장 많은 곳이 볼리비아에 약 200 만 마리, 다음에 페루에 약 100 만 마리, 그리고 에콰도르, 칠레, 아르헨티나에 약 10 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 라마는 거의 현지 인디오의 소유로 관리되고 있으며, 옛날 잉카시대부터 짐을 나르는 하역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때로는 식용으로도 쓰였으나 이 근래에는 주로 하역용으로 쓰이고 있다.

다만 라마의 털이 알파카나 다른 동물보다는 좀 거칠어서 알파카나 비큐나 털처럼 귀중하게 취급은 안되지만, 그래도 라마 털로 러그(Rug)를 만들기도 하고, 로프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라마의 털은 긴 목이나 몸 전체에 골고루 잘 퍼져 있으나, 얼굴과 턱 부분에는 없고, 복부 부분으로 내려가면서 적어지고 있다. 이 라마의 털에도 굵은 자모와 가느다란 면모가 한데 어울려 있으며, kemp도 상당히 섞여 있다.

성장한 라마의 털 중에서 면모는 30 μm 보다 가는 것이 약 35 %, 30 ~ 50 μm 이 40 %, 그 이상이 25 %의 비율로 섞여 있다. 어린 라마는 30 μm 이하가 60 %, 30 ~ 50 μm 이 30 %, 그 이상이 10 %의 비율이다. 반면 자모는 120 μm 까지도 나온다. 색상은 갈색이 가장 많고, 다음이 검정색, 그리고 백색이나 혼색의 것이 다소 있다.

이 라마의 털은 주로 인디오들의 가공품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의류, 자루, 로프에 이르기까지 수공업으로 가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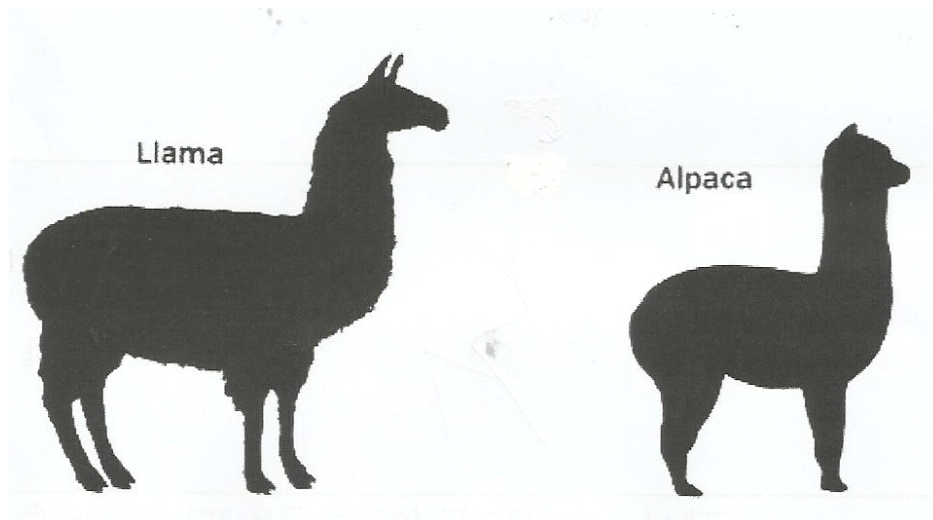
이 라마의 털의 수출 선은 주로 영국인데, 영국에서는 자모를 제거시키고, 두꺼운 모직물을 만들어 남성들의 겨울 코트 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구아나코도 라마나 알파카와 마찬가지로 같은 낙타과의 동물로 같은 라마종으로 여겼으나 이 근래 구분하고 있다. 라마보다는 몸집이 다소 작아서 몸길이가 1.2 m 정도지만, 알파카 보다는 크다.

구아나코의 원산지는 페루지만 남쪽으로는 Tierra Del Fuego 섬에 이르는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야생상태로 서식하고 있으며, 현재는 페루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다.

털은 약 25 cm가 되는 자모와 18 ~ 20 cm가 되는 면모로 구성되어 있다. 색상은 머리 부분이 흰색이고, 몸체의 등 부분이 붉은 다갈색, 아래로 내려갈수록 옅어져서 복부는 백색이다.

구아나코의 새끼를 구아나키토(Guanakito)라고 하는데, 이 새끼의 가죽을 모피의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모피 자체를 구아나키토라고도 한다. 또한 이 모피를 출랭고(Chulengo)라고도 하며, 침대 커버용으로 진귀품 취급을 한다. ♣ (공석봉)



<안데스 가축의 크기 비교>

Llama>Guanaco>Alpaca>Vicuna